

한국인의 정치적 팬덤 정서와 영화의 수용 : <변호인>,(2013)과 <국제시장>,(2014)을 중심으로

The Political Fandom of Korean and the Acceptance of the Film : <The Attorney>,(2013) vs.<Ode to My Father>,(2014)

최배석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문화예술학과

Bae Suk Choi(cbsk007@naver.com)

요약

보수와 진보, 이념적 갈등이 빚어내는 정치 정서의 팬덤현상은 문화매체인 영화를 해석하고 수용하는 데에 있어 우리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정치의식구조가 왜 팬덤화 되고 있는가, 무엇이 영화 수용을 정치 이념의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하였는가, 그렇다면 바람직한 영화 수용의 태도는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당시 영화를 두고 보수와 진보의 논란이 되었던 <변호인>,(2013)과 <국제시장>,(2014) 관련 논문과 기사 그리고 인터넷상의 논쟁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담론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보수 진보 양진영은 두 영화를 해석하고 수용함에 있어서 다른 시선으로 같은 세계를 보고 있으며, 두 영화의 공식기억을 정치정서의 양극화와 기억투쟁의 이데올로기, 진영화를 구축하는 기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근현대사에 대한 합의된 기억의 구성이 되지 못함으로써 양 세력 간에 서로의 공과를 인정치 않으며 자기 진영의 의미와 가치성만을 외치는 이기성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셋째, 영화 해석과 의미생산은 결국 관객들의 몫이며 거기에는 다양성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영화 수용은 관객 개인들이 현재의 현실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상을 이성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일 것이다.

■ 중심어 : | 팬덤현상 | 확증편향 | 기억투쟁 | 산업화와 민주화 | 영화해석 |

Abstract

The fandom phenomenon of political emotion originated from ideological conflicts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amplifies social conflicts in South Korea in interpreting and accepting films as culture medi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y the structure of political consciousness in South Korea is fandomized, what is the acceptance of cinema at the center of the controversy of political ideology, and what is the desirable attitude of film reception. I conducted a discourse analysis that closely examined the debates and articles on the internet regarding <The Attorney>,(2013) and <Ode to My Father>,(2014) which were controversial in terms of conservatism and progressivism. As a result, First, while Korean society has not constituted a consensus o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it has easily led the acceptance of cinema to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political ideology. Second, the failure of constructing consensual memories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has made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not acknowledge the other's achievements. Third, film interpretation and meaning production are ultimately the roles of the audience, and on interpretation, diversity should be respected but conformity would be rejected. Film acceptance and interpretation should focus on rational awareness of social reality and would reflect on the social ideal objectively.

■ keyword : | Fandom Phenomenon | Confirmation Bias | Memory Struggle |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 Film Interpretation |

I. 문제의 제기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치러진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그간 우리 사회에서 고질병처럼 나타났던 지역주의 보다는 보수와 진보 그리고 세대 갈등이라는 현상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서구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일제청산과 전쟁의 과정에서 빚어진 모순과 미중일 강대국의 이익 구조라는 국제환경 안에서 다소 기이한 모습으로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여러 사회적 갈등을 일단 좌우 이념문제로 규정하고, 격화시키고 보는 층은 언제나 이로 말미암아 이득을 취하는 정치인들과 그 언저리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의 몫이었다.

이러한 변질된 이념논쟁은 영화, 연극, 가요 등 문화예술계 전반에까지 확산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10년 경 비슷한 시기에 개봉된 <변호인>,(2013)과 <국제시장>,(2014)을 놓고 벌어진 일련의 논쟁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이념논쟁에 취약한지를 보여 준 사례일 것이다. 영화학계에서도 작품에 대한 분석이나 비평 보다는 이념적 해석이 주를 이루으로써 보수와 진보라는 양진영에 논거를 제공하는데 일조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과연 두 영화가 보수와 진보 양진영의 주장처럼 그들을 대변하는 영화였는가? 아니면 제 필요에 맞게 선택적으로 지각하여 자기 진영 논리 구축에 경도된 해석들을 하는 아전인수의 소재였는가? 본 연구는 이런 의문에 주목하고 그 이면에 무엇이, 왜 이런 해석들을 하게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과제를 떠안게 되었는지 숙고해 보고자 한다.

‘인간은 심리학적으로 편향적 사고를 하는 존재’[1]라 할 수 있다. 사람의 자아정체성 형성은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집단으로부터 학습되어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람은 자신의 직간접 경험에 의해 획득어지는 지식에 따라 편의적으로 선택적 지각(selective perception)을 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강화 시키는 경향이 있다[2-4]. 그렇게 강화된 확증신념은 어떤 상황이나 반론 증거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정관념(stereotyping)을 형성하며 이러한 고정관념은

열광적인 편향의 극단인 팬덤 현상을 낳기에 이른다. 이 팬덤 현상은 인기 연예인을 추종하는 무조건적인 광팬 문화에서 시작되어 언제부턴가는 우리 정치 분야에도 형성되어 있다. 정치 분야의 팬덤 현상은 영화를 놓고 벌어진 그릇된 이념논쟁을 확대 재생산 시키며 우리 사회의 분열을 획책하는 동력이 되었고, 급기야 이념에서 한 발 비켜선 순수한 영화관객들에게 마저 보수 진보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듯한 경박성을 보이고 있다. 영화 매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리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결코 건강한 영화 수용태도가 아니며 더욱이 우리 사회의 사고의 다양성을 헤치는 좋지 않은 사례임은 분명해 보인다. 영화를 이용한 문화정치 행태는 예술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나아가서는 그것을 향유하고 소비하는 국민들의 문화권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염려치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사람의 자기정체성 형성은 그가 속한 사회로부터 학습되어지는 것으로, 영화는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간접적 경험을 제공하는 사회기억, 즉 집합기억의 재현물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용인되고 소비되는 우리 사회에 내제된 정서는 무엇인가 또 그 정서는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영화라는 집합 기억을 어떻게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영화에 대한 선행논문들과 기사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벌어진 논란의 글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거시적인 맥락에 흐르는 함의를 포착해 내고자하였다.

II.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국제시장>과 <변호인>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서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이념논쟁 소재가 되었다. <국제시장>은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당시 시대상을 잘 표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역사의 장면을 관통하는 독재와 같은 어두운 이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나 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변호인>은 ‘현실 정치에서 결여된 민주주의 가치를 열망하는 대중의 정치적 무

의식을 반영한 영화'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립사건(1981)의 사실 왜곡과 노무현이라는 특정인물로 수렴될 위험이 높은 정치 신화영화'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였다. 이들 영화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보수와 진보, 즉 지배와 저항담론의 정치적 텍스트로 규정하는 축과 또 하나는 두 영화를 그렇게 이념적 시각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영화를 그저 영화로 보고 싶은 사람은 보편타당한 이야기로, 역사적 기억과 연결해 해석하고 싶은 사람은 시대를 반영한 현실적인 이야기로 각자 해석할 수 있는 영화 수용미학의 여지가 논란의 지평을 넓혔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병기는 <국제시장>을 근현대사를 관통해온 지배 이데올로기의 영화적 재구성이자 문화적 재확인이며 관객을 향한 재교육의 텍스트[5]라고 주장한다. "국가를 확대된 가족의 형태"로 이해하며 가부장적 가족주의의 덕목 중에서도 특히 효는 "권위주의적 지배질서를 뒷받침해주는 정당성의 원리로 활용"된대[6]는 시각에서 이 영화를 보수주의 영화로 해석한다.

강정석 또한 영화를 관람하는 대중들의 집단적 감정 구조 또는 심리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며 <국제시장>에서 담지 하는 공통적 감정이 지닌 특성을 당대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찾는다. <국제시장>은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지배이념을 담고 있고, 국가근대화 - 교육적 기능 - 한국사회의 보수성을 확인시킨 사례로 규정한다. 그는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서사나 디제시스(diegesis), 역사적 맥락, 스타일 등의 요소들을 통해 재현되는 정서가 대중들이 공유하는 집단적 정서와 마주하고 있으며, 자신을 둘러싼 가족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이데올로기가 작동한다고 보고 이것이 바로 보수적이라는 논리를 폈다[7].

그러나 영화에서 국가에 대한 언급이나 재현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면에서 오히려 "국가주의 미화라고 비판하는 것은 어긋난 독해"라는 것이 박은하의 주장이다. 박은하는 "산업화 세대의 정치적 보수성을 탈색시킨 영화"라는 평에 동의할 수 없고, 영화를 둘러싼 논쟁이 세대갈등으로 수렴될 필요도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의 삶을 통해 국가의 역할

에 대해 생각해 볼 가능성이 있었던 영화[8]라며 지나친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하였다. 영화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 관객들은 그냥 재미로 영화를 선택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지미 역시 <국제시장>을 단순히 보수적인 정권을 옹호하는 서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아버지=국가'라는 공식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파독 광부 선발시험 장면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를 부르며 신체검사 탈락위기를 모면한다든가 부부싸움 도중 옆 사람의 눈총에 못 이겨 마지못해 일어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장면은 애국심과는 거리가 먼 웃음을 자아내는 블랙코미디로 작용한다[9]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난국을 해결해 나가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사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로까지 희화화된다. <국제시장>에서 덕수 세대는 국가의 보호 없이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각자도생하는 세대다. <국제시장>이 고무한 보수주의를 대변한다면 그것은 강력한 국가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국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 한다[10]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변호인> 역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김지미는 <변호인>을 '자수성가'식의 성공 신화에 대한 비판적 향수와 '지금, 여기'의 현실 정치에서 결여된 민주주의 가치를 열망하는 대중의 정치적 무의식을 반영함으로써 대중적 호응을 얻었다[11]고 봄으로써 영화가 현재에서 과거의 대중기억을 소환하는 기억의 재현물로 영화의 논란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광일은 <변호인>은 현재의 '정치 빈곤'을 넘어서는 의미 있는 비판, 저항일 수 있는지를 숙고한다. 이 영화는 과거 자신들의 투쟁의 성과로 자임하는 그 어떤 민주주의, 즉 정치적 자유화의 위기 혹은 후퇴를 역설하며 자신의 존재이유를 다시 확인 받고자 호소하는 것뿐이었고, 그런 과거의 재현은 역설적으로 이 사회가 이미 민주화되었음을 반증하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다[12]고 반론하며 이념적 진영논리를 경계한다. 정원은 <변호인>은 민주화 이후 나타난 민주주의의 위기를 과거 역사를 통해 포착하며, 공동체의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방식을 통해 현실의 분석과 변화에 개입할 수 있는 영화의 사

회적 역할과 과제를 점검하는 기능을 상기시킴으로서 영화 메시지와는 별개로 이 영화의 이념논란에 또 다른 시각을 제기하였다[13].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두 영화를 보수 진보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연구들과 영화를 이념적인 틀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보아야한다는 주장하는 성과들이다. 그러나 과거 기억의 재구성물인 영화를 관람하는 대중들이 영화 속에 재현되는 집단기억이 개인들에게 어떻게 구조화 되고, 그것이 각자의 정치의식 구조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수용자 인식차원의 연구라고 보기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양극화 되어있는 한국인의 정치적 팬덤 현상을 주목하고, 이 정치적 팬덤 정서 구조 형성과정과 위험성 그리고 이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영화 수용의 바람직한 태도를 탐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확증편향과 고정관념 그리고 자기정체성

인간에게는 다양한 편향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감정과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양한 증거와 반론들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는 비판적 사고를 방해하는 대표적 편향이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라 할 수 있다(Schwind & Buder, 2012, Lilienfeld & Ammirati, Landfield, 2009). 한마디로 자신의 선입견에 따라 자기가 믿고 싶어 하는 대로 정보를 처리 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런 면에서 확증편향은 모든 생각의 오류의 출발이 될 수 있다. Nickerson(1998)에 의하면, 확증편향이란 “진리 여부가 불확실한 가설 혹은 믿음을 부적절하게 강화하는 행위”[14]를 뜻한다. 이러한 부적절한 강화는 사전신념으로부터 시작되고 결국 고정관념을 더욱 공고히 구조화시키는 충위를 형성하게 된다. Nickerson(1998)은 확증편향 현상의 원인을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진실이기를 바라는 것은 더 쉽게 믿는 반면, 거짓이기를 바라는 것은 잘 믿으려 하지 않는 인간 본연의 습성 때문으로 자기믿음에 반증되는 증거는 도외시하고, 믿음을 확인 해주는 증거만을 찾는다는 것이다. 둘째, 자신의 신념을 지지하는 정보에 자신을 더 노출시키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

자신의 입장과 일관된 정보를 더 빈번히 접하게 되면 가설은 그 진위와 상관없이 강화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15]. 셋째, 긍정편향이란 습성 때문에 인간은 부정적인 정보보다 긍정적인 정보를 더 편안하게 생각하게 된다. 즉 아주 확실한 증거가 아닌 이상 주어진 가설을 진실로 보려는 성향이 강하다[16]는 것이다. 넷째, 어떤 가설을 타당하게 설명할 경우, 그 가설을 진리라고 믿게 되는 성향이 강해진다는 것이다[17]. 즉 가설의 진실성에 대해 잠시 생각하게 되면 그 가설에 대해 집중하게 되는데, 이 때 가설에 대한 믿음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차후의 사고, 증거해석, 정보탐색의 지속성에도 형성을 미치게 된다[18]. 끝으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는 활동을 자주 하는데, 이 때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증거만을 탐색하는 행위를 유발하거나, 그러한 사고 성향을 학습하게 한다[19]는 것이다[20].

이러한 확증편향적 성향의 위험성은 이성이 개입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순식간에 이루어진다[21]는 데에 있다. 오늘날과 같이 SNS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확증편향의 정도가 더욱 견고하게 형성되어지고 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댓글을 달며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자신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생각은 집중 공세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하며 자신들의 신념편향(belief bias)을 공고히 한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게 의미 있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선택적 지각(selective perception)의 포로가 되기 쉽다. 확증편향은 사전에 취득한 지식과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체득되어진 사회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선택적 지각을 통해 작동해 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되고 구조화된 신념체계는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태도와 행동을 규정해 나가는 고정관념¹⁾으로 고착되어진다. 사회고정관념은 사람이 어떤 생각, 관념을 가질 때 누구의 어떤 설득에도 혹은 상황이 바뀌어도 수정되지 않는 신념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집단이나 사회적 범주의 구성원들의 전형적 특징에 대한 신념이라고 할 수 있

1) 사회고정관념은 사람이 어떤 생각, 관념을 가질 때 누구의 어떤 설득에도 혹은 상황이 바뀌어도 수정되지 않는 신념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집단이나 사회적 범주의 구성원들의 전형적 특징에 대한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 고정관념은 사회나 인간이 지니고 있는 도식(schema)에 크게 의존한다. 고정관념 역시 선천적 원인이 아닌 학습에 의한 결과이다. 인간은 사회화를 통해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의 신념체계를 습득하게 되는데 사회로부터 학습된 사회 관념에 대한 맹목적인 동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우리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의 일부는 우리가 속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집단에 의해서 결정된다. Barnum(1997)은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이 자아개념(self-concept)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적 범주에 대한 멤버십(social category membership)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의 지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사회 관념이란 것은 고정불변하며 당연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강요된다. 또 교육이나 미디어를 통해 의미화과정을 거치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느낄 수 없도록 자연화 되어 있다. 미디어, 그 중에서도 자신의 선택으로 시간과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는 매체인 영화는 자신의 사회 정체성을 강화 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될 수 있다. 영화는 그 사회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집단기억을 재현해내는 문화적 의미 실천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억 연구가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는 사회집단의 정체성은 그 사회의 집단 기억(memoire collective)에 의해서 형성되어진다고 주장한다.

1.2 집단의 기억과 사회정체성 형성

기억이란 사람이나 동물 등의 생활체가 경험한 것이 어떤 형태로 간직되었다가 나중에 재생 또는 재구성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특정한 인지 기능이다. 기억에 관한 여러 논의들은 집단기억[22], 사회적 기억[23], 문화적 기억[24], 기억의 터[2], 대중기억[26]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점은 기억은 현재적 조건과 관련지어 재구성되기 때문에 사회적이고 집단적이며 인위적이라는 것이다. 문화적 기억은 사회적(사람, 사회관계, 제도), 물질적(미디어와 문화적 생산물), 정신적(사상과 생각이 설명되는 방식)인 관점에서 기억을 다루며, 특히 개인과 집

단이라는 각각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기억되는 가라는 방식은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준다. 알박스는 뒤르켐(Émile Durkheim)의 ‘집합의식’에 영향을 받아 비록 기억의 주체가 개인일지라도 실제 개인들은 사회라는 집단의 구성원으로만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사회 집단을 결속 시키는 것은 ‘집단 기억’이라고 하였다[27]. 알박스에 따르면 개인의 기억은 집단의 상호작용 속에서, 타인들과의 연결망 속에서 그 의미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28]. 기억 행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그 원초적인 기억조차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는 개인에게 기억의 근거를 주기도하고 때로는 개인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들도 간접 경험으로 기억하도록 해준다. 모든 개인의 기억은 온전히 기억될 수 없으며 시간과 사회적 조건에 따라 일반화한 ‘심상’이 되는데 이 심상으로서의 기억은 사회적으로 활용되는 상징과 이야기 그리고 이를 저장하고 전수하는 사회적 수단의 산물인 것이다[29]. 이로써 개인들은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사회화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나아가 기억은 사회 속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집단적 정체성 확인과 자아와 타자를 구별 짓는 아비투스(habitus)적 역할을 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기억의 집단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기억의 문제를 집단적 정체성의 시각에서 설명한다. 그러나 집단기억은 단순히 개인의 기억들이 집합적으로 모여서 형성된 개념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억은 항상 특정한 집단에게만 유효할 뿐이며 보편성과는 거리가 멀다.²⁾ 그래서 기억은 불완전하며 현재의 상황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확장된 시간을 토대로 과거를 재해석하면서 상실된 혹은 현재에 부재하는 공통의 정서적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서사적 도구로서 기능한다[30]. 따라서 내가 기억을 하지만, 사실 나는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다. 기억은 재구성의 행위이다. 즉 기억은 경험에 대한 의미부여를 통해서 성립하는데 여기서 사회적 의미들이 중요한 역

2) 따라서 집단기억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도, 역사 자체와도 다를 수 있다. 이리하여 집단기억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관한 신념체계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이처럼 집단기억은 객관성을 가지는 역사적 해석과 다르기에 역사적 사실을 넘어설 수도 있으며 심지어 무관할 수도 있다.

할을 한다.

문화적 기억은 특정한 신념과 인식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그 사회 구성원들의 정체성에 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사회 구성원들은 문화적 기억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도해 가며 다양한 문화적 실천들³⁾을 통해 전승된다고 Young은 주장한다 [31]. 특히 영화를 통한 기억재현은 그 해당 과거를 직접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모두에게 특별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한다. 중요한 것은 영화가 사회구성원들에게 과거에 대한 동질적인 체험을 제공하게끔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과거를 기억하는 의미실천체계라는 것이다. 역사가 카(E. H. Carr)가 역사는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 했듯이[32] 기억 역시 과거를 통해 현재에서 소통하는 것이다. 문화적 기억은 과거에 대한 현재화의 내용이 자형식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기 때문에, 기억에 대한 논의의 범접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에 대한 이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기억은 현재적 조건에서 과거를 재구성해 내기 때문이다. 기억이 과거의 내용을 되살리는 과정 속에서 일부는 강조되거나 변형되고 혹은 배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의 조건 혹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성을 내포한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두 영화를 놓고 전개되는 일련의 논쟁은 기억의 문화정치가 우리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1.3 영화적 기억과 문화적 정체성

문화적 '기능기억' 가운데 현대 대중에게 가장 폭 넓게 소비되는 매체로는 아마도 영화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영화는 수많은 기억들을 재단하여 그것을 이해와 공감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증명된 '스토리텔링'으로 제시한다. 여기에 시대를 환기하는 시각적 이미지들을 배치하고 청각적 자극을 통해 그 기억을 정서적으로 고양시킨다. 게다가 영화관이라는 공공의 공간을 점유하며 집단적 감상이 이루어지는 수용적 특성으로 인

해 영화 관람은 단순한 문화체험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억은 세계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면서 과거를 보존하고 현재에 의미를 준다. 그러므로 기억은 존재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핵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영화는 기억을 재현하는 서사양식으로 영화를 만드는 과정은 기억을 새기는 과정이 된다. 영화매체가 지닌 감각성과 직접성은 역사적 사건이나 타인의 과거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생생하게 체험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이른바 '보철기억'으로 기능 한다.⁴⁾ 이와 같이 문화적 기억은 일종의 보철기억으로 기능하면서 공적 사건을 개인들의 기억으로 바꾸어 주면서 정체성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영화는 제2의 기억으로서 자리 잡으면서 공적과거와 사적기억을, 그리고 역사와 개인을 매개하면서 집단적 기억 틀을 형성한다. 영화적 기억이 집단의 정체성과 맺고 있는 관계이다. 문화적 기억과 집단적 정체성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집단적 무의식과 욕망이다. 그러니까 기억은 실제사건과 판타지, 과거와 현재, 소망과 억압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일종의 성운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33]. 따라서 영화는 기억에 대한 서사상품이고 기억의 문화정치로 변태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들은 문화적 기억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축조해나가고 이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즉 자아 존중감을 높이며 자신을 확인해 갈 뿐만 아니라 확장편향을 통해 선택적 지각을 하게 되고 이는 사회 고정관념을 형성, 강화하는 것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선입견과 편견을 부파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고정관념은 세계를 지각하는데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을 제공한다. 즉 정보처리에 필요한 투입 노력을 적게 들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정보를 처리하는데 이성적이고 비판적으로 숙고하기 보다는 감정적이고, 호불호(好不好)와 같은 선입견과 편견에 따라 손쉽게 관

3) 문자로 구성된 기록물, 회화, 사진, 영상 등과 같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묘비와 기념비, 건축물과 기념관, 박물관 등 공간, 그리고 의례와 축제 등.

4) '보철기억prosthetic memory'이란 랜드버거의 개념으로 공적으로 순환되는 문화적 기억을 대중문화의 테크놀러지를 통해 마치 자신이 실제로 겪은 것인 양 경험하는 기억이다. 랜드버거에 의하면 이러한 기억이 비록 시뮬레이션과 재영상된 기억이어서 인공기억이지만, 그러나 삶과 경험에 작용하면서 개인적 기억에 축적된다. 그러하여 개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동일화까지 매개해준다는 것이다.

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강화, 고착화시키는 새로운 형태는 SNS를 중심으로 하는 팬덤 현상일 것이다. 같은 선호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지향점을 향해 열광적으로 결속하며 신념편향을 공고히 하는 팬덤 현상은 정치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영화라는 대중문화를 해석하고 수용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이념논란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같은 영화를 보기도 다양한 증거나 반론들을 숙고하여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팬덤 세력의 입장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인식하며 왜곡하고 부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에게 조차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편향적 사고를 강요하는 현상이 빚어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팬덤 세력에 가담하게 되는 순간부터 자신이 갖고 있던 역사적, 사회적 기억은 강화되고 때로는 수정되어질 가능성은 높다할 수 있다.

III. 한국인의 두 가지 정치적 팬덤 정서 구조 형성

팬덤(fandom)이란 ‘열광자’라는 뜻의 Fanatic과 ‘세력권’을 뜻하는 접미어 Dom의 합성어로,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그러한 문화 및 사회적 현상을 뜻한다[34]. 팬덤은 산업사회의 대중문화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지자에 대한 적극적인 선호와 능동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만큼 팬덤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 합리적인 판단이나 비판보다는 확고적이고 일방적인 성향이 특징으로 나타나기 쉽다. 특히 결속력의 차원에서 본다면 개인의 자발적 의사로 행동변화를 일으킨 무리는 정치 집단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정치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가 시비를 가리는 토론이라면 팬덤은 피아를 구분하는 믿음이다. 토론이 실종되고 믿음만이 남을 때 합리적인 비판을 감정적인 욕설로 간주하는 태도, 이게 바로 팬덤의 무한한 가능성이자 유한한 폐쇄성이라 할 것이다. 팬덤 문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면서 자정

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하나의 집단이자, 광신도처럼 변해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과거 노사모에서 시작된 ‘팬덤 정치’는 오늘날까지도 연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팬덤 정치는 특정 후보를 그가 속한 정당의 이념과 노선, 정강·정책을 보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맹신적인 지지를 하는 태도를 말한다. ‘냉소적 포퓰리즘’과 ‘열광적 포퓰리즘’을 반복하는 동안 성찰적 민주주의의 힘과 지속성은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크다. 과잉 정치에 정치 과잉으로 대응해도 사회구조는 별로 변하지 않은 채 또 다른 과잉 정치로 이어질 수 있다. ‘열광적 포퓰리즘’은 ‘정치 팬’이 만들어지고 그들은 제도권 바깥에서 포퓰리즘의 새로운 싹을 뿌린다.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전선의 설정은 우리사회를 더욱 경직된 분열의 사회로 몰아갈 가능성이 제기된다[35]. 작금의 우리사회의 정치현실이 그러해 보인다.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좌우의 개념 보다 우리 사회의 정치적 정서를 설명하는데 보다 적절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보수와 진보는 좌파 우파의 본질을 추구하는 이념 대립이 아니라 일종의 ‘경계고수’와 ‘경계 허물기’의 대립양상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의 보수주의가 반공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철학적, 종교적 기반이 결여되어 있고, 집권세력과 수구세력, 기득권자, 보수적 중간층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만 기능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도덕성으로 무장한 서구의 합리적인 보수와는 다른 이기주의에 빠져있다. 진보 또한 서구의 중도 우파의 위치와 비슷하다. 한국은 반일과 반공이라는 이념의 양대 축으로 하여 탄생하였다. 문제는 반일과 반공이라는 두 이념이 양립하기 어려운 국내의 환경에 처해 있었다. 한국은 해방과 동시에 냉전에 휘말리게 되어 미국의 체제적 영향 하에 일제잔재 청산 보다는 일본으로 공산세력이 퍼지는 것을 막는 방과제였다. 따라서 남한은 철저한 반공국가인 동시에 중도 우파를 창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김구, 이승만 같은 보수색 짙은 독립운동가 뿐만 아니라 과거 일제하에서 일본의 조선통치에 협조했던 친일세력, 특히 공산주의자 색출, 검거를 위해 친일경찰 세력 그리고 남한의

급박한 군(軍)재건 과정에도 일제하에서 훈련 받고 전쟁 경험이 있는 인물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에게는 군의 정치개입 정당화를 위해서라도 경제적인 성장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필요로 했다. 국가주도형 경제개발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못지않을 만큼 강한 국민 총동원체제를 구축하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였다는 사실이다. 겉으로는 공산체제에 반대해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를 한다고 천명하였지만 내용적으로 본다면 독재와 독점이 판을 치게 된 이상한 정경유착의 구조가 형성되었다. 여기에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세력의 등장과 3김의 정치적 목적으로 형성된 지역주의 폐해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갈등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여기서 내용이야 어쨌든 한국식 경제발전모델은 짧은 기간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성공한 점, 계층 간 위화감 조성부 분배 보다는 국가전체의 부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보수주의 이론이 되었다. 반면 진보주의 입장에서는 한국적 경제발전 모델은 외세와 외국 자본에 대한 종속은 물론이고, 부정확한 과정을 통해 부를 축적한 계층이 민중을 억압하는 불평등 구조를 고착했다고 비판한다. 이와 같은 진영의 생성과정과 대결구도는 서로의 공과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데에 인색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여러 가지 설명하기 어려운 수없는 이유 때문에 보수주의자도 되기도 하고 진보주의자도 되기도 한다. 어느 한 입장에 지속적으로 설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도주의자라고 표방하기도 애매한 이른바 모자이크 중도주의자⁵⁾로 남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정치적 현실이다.

우리 현대사에 큰 그늘을 드리운 두 개의 시대정신은 산업화와 민주화였다. 박정희가 산업화의 상징이라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민주화의 상징이다. 여러 점을 고려할 때 박정희의 정치적 맞수는 김대중일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김대중이 아닌 노무현을 다루고자 한다. 여기서 노무현을 살펴보려는 것은 더없이 극적인 노무현의 삶이 486세대를 포함해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에게 여전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며 편

답이라는 화두에는 노무현이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화 세력 대 민주화 세력, 다시 말하면 박정희의 시대정신 대 노무현의 시대정신이 맞서왔으며, 지식사회 역시 이러한 구도에 대응해왔다.

박정희 시대에 뿌리내린 성장지상주의와 군사문화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 심층의식의 일단을 이루고 있다. 박정희 개인에 대한 평가 역시 ‘민족의 영웅’에서 ‘독재의 원조(元祖)’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이뤄져 왔다. 이러한 배경은 개인적 존재로서의 박정희는 1979년에 사망했으나, 역사적 존재로서의 박정희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살아있으며, 또 매우 강렬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은 최근 촛불집회와 맞불집회에서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개발독재는 경제적 개발과 정치적 독재가 결합돼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두 얼굴을 가진 박정희였기에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에 열광하는 이른바 반공과 산업화, 영남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진영의 정치적 팬덤 정서 한 축과 독재와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팬덤 정서 한 축이 우리 사회에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다^[36]. 박정희와 노무현은 우리 정치적 정서에 ‘신화화’되어 있는 듯하다. 그런데 대체로 신화화는 사실은 선택적으로 취합하는 편향을 양산하기에 위험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신화는 판단의 자리를 믿음에 내어주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 신화성이 장기간 지속되면 대중들에게는 정치적 사고와 판단에 습(習)이 생길 가능성 있게 된다. 이처럼 양분화 된 팬덤 정치정서의 지형은 영화가 대중문화로 향유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담론을 넘어서 치열한 기억 문화정치의 도구로 변질 되어버린다.

IV. 정치적 팬덤 정서와 영화 수용

1. 영화 해석과 수용 태도

보수와 진보 양진영간 논쟁의 핵심에는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가 자리하고 있다. 역대 ‘천만 영화’ 가운데 ‘국가와 국민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현재적 화답을 보여주는 영화가

5) 사안별로 보수와 진보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중도성향 계층

〈변호인〉(2013)과 〈국제시장〉(2014)이라 할 수 있다. 두 영화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축적되어 있는 ‘저장 기억’ 가운데 ‘기능 기억’으로 활성화시킨 ‘스토리텔링’ 속의 ‘국가’와 ‘국민’은 일견 상반된 지향성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37]. 이 영화들로 인해 새로운 집단 기억의 심상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이란 무엇인가’라는 이데올로기적 논란의 대상이 된 영화 〈국제시장〉과 〈변호인〉의 흥행은 한국 정치가 보수와 진보 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대중이 그 사이를 진자운동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확인해주는 대중예술의 구체적인 사례이며, 또한 비슷한 시기에 상영되어, 이 두 영화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본 논문의 주제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텍스트이자 적절한 소재로 판단된다.

영화는 이데올로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영화 비평도 이데올로기 작업 그 자체가 아니다. 우리는 노무현을 소재로 하는 영화 〈변호인〉이나 〈광해〉에 대해서는 아무리 왜곡·미화·찬양해도 호의적이고, 〈국제시장〉, 〈연평해전〉, 〈인천상륙작전〉 등과 같은 영화에 대해 애국심을 언급하면 적으로 몰아 부치는 한 축의 팬덤 세력과 〈변호인〉에 대해서 중복 좌파 굴레를 씌우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또 다른 한 축의 팬덤 세력이 양립하며 양 극단으로 치닫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전문가 담론의 생산지로서 영화비평은 자신의 영토를 상실한 것처럼 보이고 대중들은 자석에 이끌리듯 어느 한편에 서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경도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각자 자신들이 설정한 허수아비 이념들을 상대로 주먹질을 날리는 감정독재의 경기만 남은 듯하다.

인구 5000만의 나라에서 〈변호인〉이나 〈국제시장〉 영화에 관객이 1000만 이상이 몰린다는 건 결국 극단(極端)에 반응하는 한국 사회의 병폐를 드러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극단적인 왜곡, 극단적인 선악구분이 자유의 가면을 쓴 채 과거의 일, 과거의 기억에 대해 아전인수격으로 우리 사회를 분열의 편 가르기로 추동하고 있다. 이러한 양극단의 팬덤 현상이 영화예술을 수용하는데 있어서도 진영 간의 선택적 지각과 확증편향, 그리고 집단정체성을 확인하고 집단의식과 신념을 형성하고

고 공고히 하는 기재로 활용되고 또 일반 대중들에게 소비를 강요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그 과거를 소환하는 주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을 뿐만 아니라 과거 기억을 재구성한 재현물인 영화를 수용하는 관객들 개개인들의 현실, 정체성, 목적성에 따라 해석하고 수용되기 때문에 갈등과 논쟁을 불러올 가능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두 영화감독들이 정치성을 극구 부인하지만 영화 재현의 방식들의 본질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자장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소비가 그 사회 구성원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때, 천만을 훌쩍 넘긴 이 두 영화는 아마도 시대적 특수성과 연결되어 있다할 것이다. 같은 정보도 어떤 시각과 관점에서, 즉 어떤 틀로 제공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사실상 똑같은 정보도 긍정적인 틀로 제시하느냐 부정적인 틀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상은 달라진다는 프레임효과(frame effect)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두 개의 영화지만 이렇게 편을 갈라서 〈변호인〉은 ‘민주화세대’, 〈국제시장〉은 ‘산업화세대’에게 각각 공감을 주는 영화라고 단정하는 것이 온당한 것일까? 영화의 완성성은 관객의 관람에서 이루어진다. 영화 비평가의 기능이 관객에게 질적인 영화 감상지식을 제고하고 제작자 즉 감독이나 배우 등 직접 참여자들에게 진전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영화의 질을 판단하고 입증하는 것, 나아가 작품과 현실을 연결시켜 관객이 삶을 반추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때, 작금의 두 영화에 대한 평이나 연구물조차도 오히려 영화예술을 통한 관객들의 현실 반추와 이성적 성찰 계기 제공이라는 본래의 가치성을 방해하고 훼손하는 일에 일조 하는 것은 아닐까? 일반 대중은 영화 전문가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하는 영화 해석이 자기 판단의 정확성이나 해석보다 더 옳을 것이라고 믿는 편승효과(bandwagon effect)는 시류에 편승하는 오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마땅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극단의 팬덤 현상이 영화를 수용하는데 있어서도 진영 간의 선택적 지각과 확증편향, 그리고 집단정체성을 확인하고 집단의식과 신념을 형성하고 공고히 하는 기

제로 활용되고, 소비되고 있음은 우리사회의 극단적 분열현상을 확인해 주는 '기억의 문화정치'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적지 않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영화에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 정치적 논쟁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2. 영화의 선택적 지각과 편취

영화가 대체로 한 개인의 인생사를 추적하는 이야기를 통해 주인공이 몸담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노출시키는 것이 영화적 관습이지만,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주인공의 모습은 장치에 불과할 뿐, 정작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관객 모두가 감지할 수 있는 당대의 거시적인 구조적 정서의 포착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시장>을 보면 이야기가 개인에서 가족으로, <변호인>은 부림사건에서 송우석 변호사 개인으로, 사회와 국가로 그 씨줄과 날줄이 교차적으로 엮여지기보다 모든 갈등이 개인의 층위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그 결과 관객에게 지극히 선별적인 '사회적 기억'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수밖에 없게 되었다[38]. 그래서 영화를 둘러싼 정치·이념·세대 논쟁이 전개되는 것이다. <국제시장>에 대한 관객 반응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윗세대가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감동적인 영화”와 “산업화 세대가 기억하고 싶은 추억만 간추려 신파조로 엮은 영화”로, <변호인>은 “현실 정치에서 결여된 민주주의 가치를 열망하는 대중의 정치적 무의식을 반영한 영화”와 “사실을 왜곡하여 노무현이라는 특정인을 상기, 신화화 시키는 정치영화”로 엇갈린다. 이러한 극단적인 시각차는 온라인 댓글에서도 확인된다.⁶⁾ 영화 <국제시장>과 <변호인>을 둘러싼 이념·세대 간 논쟁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현대사와 관련해 ‘불티가 날아들기를 기다리는 기름 창고’와 같은 상황임을 보여 준 것이다.

사람은 자기 자신은 매우 객관적으로 사물과 현상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프레임에서만 본다.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은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 아니라 ‘편향과 휴리스틱적 사고’로 가득 찬 존재임을 과학적 실험 결과를 제시하며 주장 했다[39]. 즉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 이성은 그렇게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인지적 편향과 오류 속에 살면서 자기 자신만은 그렇지 않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들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판단, 주장하는 범주에만 속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가능성, 특히 자기 생각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범주에 속할 가능성은 전혀 고려의 대상도 못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며, 또 그것을 굳게 믿고 행동하기까지 한다[40]. 그래서 종교적 맹신과 정치적 골수보수, 골수진보가 생기는 것이다.

카너먼 교수는 ‘편향에 취한 상태로 사는 삶에서 깨어나서 인간본질 즉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편향적이고 휴리스틱적임을 인정하는 아픔을 겪어야 논리적으로 결함 없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41]고 지적한다. 사람은 자신의 기억 속에서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정보를 근거로 판단을 내리는 가용성 휴리스틱적[42] 존재이다. 가용성 휴리스틱은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에 기초하여 불합리한 판단을 양산하는데 인간의 기본적인 정보처리 용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긴다. 이 용량의 한계는 모든 정보를 탐색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사항을 위주로 판단하게 한다. 몇 가지 사항은 자신에게 굳건하게 자리 잡은 편향의 결정체, 고정관념들이다. 가용한 정보가 그것밖에 없으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을 조종당할 수 있는 것이다. 고정관념에 가치와 의미가 부여 되면 이것이 합리적인 판단을 가로막고 성급하고 과격한 언행으로 표출되고 급기야는 감정적인 사회갈등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판단할 때 감정적 호불호가 개재되면 인간은 직관적 판단과 선택을 이끄는 정서 휴리스틱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처음에는 논리적 논쟁으로 시작하지만 이것이 장기화 되고 확대되면 감정적 호불호가 개입되게 되어 제시되는 정보가 얼마나 그럴듯한지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쉽게 평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신념에 반대되는 정보를 접했을 때, 원래 갖고

6) 동아일보 영화팀은 의미망 분석 업체인 트리에에 의뢰해 2024년 12월 17일 개봉한 이후 31일까지 네이버 영화 섹션에 올라온 국제시장의 댓글을 살펴봤다. 10점 만점을 준 관객이 부모의 희생에 감동을 ‘느꼈다’면, 1점을 준 관객은 부모 세대의 희생을 강조한 전개에 불편해하고 정치적인 의도를 ‘읽었다’고 할 수 있다.

있던 자신의 신념을 지키거나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성향을 백파이어 효과(backfire effect)[43]라 하는데, 새로운 내용 자체 보다는 자신이 갖은 특정 대상을 향한 믿음을 더 강하게 지키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려 하는데 객관적이고 타당한 정보가 강하게 도전해 오면 그만큼 더 맹목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게 된다. 이것이 팬덤 문화가 안고 있는 위험성이고 한계성일 것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문제는 <국제시장>과 <변호인>을 어떤 정치적 입장에 유리한 영화인지 가리는 것이다. 그 당시 인터넷을 뒤져보면, <변호인>을 본 이른바 '민주화세대'가 <국제시장>을 디스한다는 불멘소리가 보수의 이름으로 쟁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편을 갈라서 <변호인>은 '민주화세대', <국제시장>은 '산업화세대'에게 각각 공감을 주는 영화라고 단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 실제로 영화관을 '좌파소굴'로 규정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보수 세력에서부터 두드러졌지 그 이전까지는 영화를 정치적인 스펙트럼에 맞춰 받아들이는 경우는 드물었다. 과거 우리에게 영화는 반공이데올로기 같은 국가권력의 이념을 확산시키는 메가폰이거나, 아니면 시대와 동떨어진 탈정치성의 대명사였다.

실상 한 걸음만 물러서서 보면 <국제시장>은 <변호인>과 대립한다기보다, 다른 시선으로 '같은 세계'를 보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즉 <변호인>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국밥집 순애와 <국제시장>의 주인공 꽃분이네 덕수는 같은 계급에 속하는 동시대인이다. 송변호사가 아니라, 국밥집 순애의 시선으로 <변호인>을 다시 찍는다면 아마 <국제시장>과 비슷한 영화가 될지도 모른다.

<변호인>에 호의적인 이들은 <국제시장>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한 면만 보았다고 불만인 것 같다. 감독은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지만, 두 영화 모두에서 역사라는 것은 개인의 인생사를 위한 배경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말하자면, 역사적 사실은 '선택'의 문제이지,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두 영화가 개인과 역사의 관계 문제를 파고들기

보다, '개인의 부채의식'에 더 강조점을 두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변호인>이든 <국제시장>이든 그냥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한 무대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언제나 이미 그 '탁월한 개인'은 있었던 것이다. 역으로 그 개인이 없었다면 굳이 그 역사적 사실은 호명될 필요가 없는 셈이다.

순애나 덕수에게 역사적 사건은 '재난'이다. 개인은 재난의 한가운데를 뚫고 살아남아야하는 '생명'으로 묘사된다. '재난'은 개인을 소멸시킨다. '재난'의 추적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개인의 생존을 도모하는 '모험담'이 두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런 의미에서 '재난'에서 살아남은 '생명'은 정치적인 것이라기보다 규범적인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지점에서 덕수는 송변호사와 순애를 합쳐놓은 인물로 판명난다. 덕수는 순애의 처지에 더 가깝지만, 송변호사의 규범을 실천한다. <국제시장>이 잘 보여주듯, 이 규범은 근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국제시장>에서 부부싸움 도중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덕수는 습관적으로, 영자는 마지못해 타인의 눈총 속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거나 <변호인>에서 송변호사를 고문구타 하던 중 애국가가 들리자 차형사가 고문을 멈추고 경례하는 장면은 신분과 상황을 떠나 관습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행하는 일종의 사회적 규범의 실천일 뿐이다.

<국제시장>은 <변호인>에서 '민주화'라는 정치적인 문제의식을 빼버린 영화이고, <변호인>은 <국제시장>에서 '산업화'라는 경제적인 문제의식을 빼버린 영화라고 볼 수 있다. 영화는 정치에 대해 침묵하는 대표적인 탈정치화 담론이다. 영화를 보던 중에 관람석을 가득 메운 나이든 관객들은 이산가족 상봉 장면에서 연신 흘린 눈물은 진보의 눈물일까? 보수의 눈물일까? 부모 형제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은 어디에도 없는 헌신 하던 장남의 희생에 울지 않다고만 매도할 수 없는 우리 가족사는 보수 진보 어디에서 정당성을 찾을까? 오히려 휴머니즘으로 포장된 비정치적 정치라는 상황이 이렇게 환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한다[44].

두 영화는 한국 근현대사 고난의 순간들을 배경으로 삼는다. 이 배경 속을 살아가는 영화 속 인물들, 덕수도

그렇고 국밥집 아줌마 순애도 하나 같이 앞만 보고 내달리는 삶의 투쟁가들이다. 물론 배경이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또는 공공성이라는 국가는 있되 국민은 없었고[45], 또 각자도생의 삶의 투쟁가들에게는 국가가 없었다. 오로지 가족과 생존만이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히 영화<국제시장>의 사회 통합적 기능을 강조했다. 그는 각료회의에서 이 장면을 예로 들어 “최근에 돌풍을 일으키는 영화에도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애국가가 퍼지니까 경례를 하더라. 그렇게 해야 나라라는 소중한 공동체가 건전하게 어떤 역경 속에서도 발전해 나갈 수 있다”[46]는 해석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변호인>에서 고문을 가하다가 애국가가 나오자 경례를 하는 차형사 장면에 대한 말은 없었다. 물론 이 영화는 보았을 리도 없었겠지만. 이것이 자기 진영논리에 부합할 때,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정보만을 취하는 선택적 지각이고 확증편향에 의한 고정관념 강화하기, 팬덤 정치의식 구조 강화하는 전형적인 예라 할 것이다. 연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러한 해석을 오독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이 이 영화의 태도이다. 당시 문제인 의원은 당 실버위원회 소속 노년층 당원, 대학생위원회 당원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했다. 일각에선 이념 편향 공격을 받고 있는 문 의원이 보수층 끌어안기의 일환으로 영화를 관람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것 역시 어느 시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문제인 본인의 의사와 달리 해석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영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 들이나 보다는 어느 진영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냐에 방점이 있는 것이다.

<변호인>은 2013년에 개봉되었고, 이 영화가 소재로 삼은 ‘부림사건(1981)’의 대법원 판결은 2014년 9월 25일에 피해자 전원(5명)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지만, 이 영화를 지지하는 팬덤 세력에게 소재가 된 부림사건 전말의 사실여부는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반대편에 서있는 팬덤 세력에게만 중요한 것이다. 이것 역시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편취하는 확증편향에 전형적인 예로써 팬덤 현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변호인>은 우리사회의 문제를 한 인권변호사의 에피파니(epiphany)를 통해 재현함으로써 정치적 민주주

의에 호소해 흥행에 크게 성공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영화의 재현방식과 수용태도에서도 한계를 나타낸다. 예를 들자면, 이 영화가 진우를 ‘결코 빨갱이가 아닌 무결점의 순수한 대학생’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주의사상을 가지고 자본주의 극복을 위해 싸운 좌익 학생을 고문과 조작을 통해 중북 용공사건으로 엮었다면, 영화 안팎에서 그러한 공감을 자아내지는 못했을 것이다[47] 영화 속 학생들이 ‘양민’일 때만 영화가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양민’이 아니라 ‘빨갱이’라면 그걸 알아채는 순간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적인 관객들의 상징계와 충돌을 일으킬 것이고 관객들은 더 이상 영화에 순수하게 몰입할 수 없었을 것이다. 끊임없이 자애롭고 희생적인 어머니, 상대는 절대 악으로 기억하는 방식이 거의 유일하게 허락된 우리사회의 정서적인 공간이고 영화재현의 한계일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민주화를 기억하는 방식이 신과적[48]으로 재현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변호인>의 공감은 보수적이다. 결국 <변호인>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모두 맥거핀(macguffin)⁷⁾일 뿐이다.

역설적이게도 <국제시장>은 정치적인 면만을 뺀 <변호인>은 정치적인 면만을 말함으로써, 보여주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결국 관객에게 같은 것을 암시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국제시장>은 어떠한 재난과 역경도 개인들이 알아서 헤쳐 나갈 방치의 문제로, <변호인>은 가혹한 가해자로 그려지고 있어 공히 거기에는 국가만 있지 국민이 없었다는 항변을 하고 있다. 다만 관객들은 각자의 집단 정체성에 따라 선택적 지각과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며 거기에 극한 감정까지 입히며 정치적 욕망을 보여 주고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어느 집단진영에도 서지 않고 남아 있는 관객은 양 극단의 팬덤 세력의 첨예한

7) 맥거핀(macguffin) ; 히치콕 감독이 영화에서 극적인 줄거리를 역동적으로 전개시키기 위해 사용한 이래 보편화된 용어로, 관객이 줄거리를 따라잡지 못하게 하는 히치콕식 속임수 장치를 말한다. 즉,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관객을 의문에 빠트리거나 긴장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사건, 상황, 인물, 소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맥거핀으로 쓰이는 소재를 미리 보여주고 관객의 자발적인 추리 행태를 통해 서스펜스를 유도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갈등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 같다.

V. 결론을 대신하여

기억은 세계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면서 과거를 보존하고 현재에 의미를 준다. 그러므로 기억은 존재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핵적 요소다. 영화는 과거의 집단 기억을 현재에서 소환해 낸 재구성물이다. 그리고 기억은 ‘지금 여기’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수정되고 편집되며 재구성된다. 서로 다른 기억들은 서로 투쟁한다. 기억은 자기 확증편향 영향 하에 편집과 왜곡 자기강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과 ‘믿고 싶은 것’을 확신으로 바뀌게 만든다. 반면 ‘말하고 싶지 않은 것’과 ‘믿지 싶지 않은 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국제시장>과 <변호인> 이 두 영화의 공식기억은 오늘날 정치정서의 양극화와 기억투쟁의 이데올로기화, 진영화를 구축하는 기제로 이용되었다. 두 영화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편향된 기억 생산의 경향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라는 대과거는 지속적인 고증과 해석을 통해 정리되어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할 때 가까운 과거기억은 여전히 다양한 기억들이 상존함으로써 해석과 논쟁은 진행 중에 있다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영화는 ‘기억의 힘’과 ‘역사와 해석’에 관한 우리들의 생각을 점검하게 만든다.

두 영화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문제는 의미망 분석결과 양 팬덤 집단세력의 생존의 문제이고, 인권이나 민주화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결국 윗세대의 희생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두 영화는,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고 재현함은 낭만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잘 만들어진 상업 영화일 뿐이다. <국제시장>을 “왜 정치가 빠졌나, 왜 사회비판적인 시각이 없나”고 매도 할 것이 아니라 “한강의 기적을 이뤄 낸 윗세대가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감동적인 영화”로 라는 감독의 말처럼 ‘정치가 뭔지 모르고 그저 자식들 안 굶게 하려고 노력했던 아버지들을 위한 헌사’로, <변호인>을 굳이 노무현 용비어천가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현실 정치에서 결여된 민주주의 가치를 열망하는 대중의 정치적 무의식을 반영한 영화”로, “보다 나은 인권이 있는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고 싶었던 용기 있는 아버지를 위한 헌사”로 받아들임으로써, 근현대사에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집단 기억으로, 역사로 간직함이 옳지 않을까?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자폐적 본영을 확대 재생산하기 보다는 인권과 우리사회 현실에 대한 이성적 성찰을 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느 기억, 어느 사실 하나도 누락시킬 수 없는 역사들로, 우리의 정체성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두 영화에서 존재한 아버지인 산업화의 아버지와 민주화의 아버지는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은 가져본 이상적 아버지상에 닮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영화는 보수의 영화도 진보의 영화도 아니다. 그저 현재의 조건들 속에서 과거 기억의 재구성, 합의의 계기를 제공했을 뿐이다. 이 두 영화는 영화관람 동기가 무엇이던 간에 천만이 넘는 관객의 공감을 얻었고, 그들 개개인의 감동 그 자체가 팬덤 세력의 일 방향으로 경도된 편향으로 인해 폄훼되지 않아야 한다. 영화예술의 완성은 관객의 관람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영화가 이데올로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영화가 무엇을 누락하고 선택했느냐, 영화 속 소재가 된 사건이 허구니 팩트니 논쟁할 필요도 없다. 허구성은 영화라는 매체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영화에서의 허구성에 대한 존중은 예술적 자율성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천적 의미의 보유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두 영화 역시 기억을 재구성한 허구적 재현물 그 자체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허구를 통해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영화는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반영하지만, 영화를 현실 그 자체로 파악하는 순간 영화예술의 가치성과 존재성은 상실된다. 브레히트(Bertold Brecht)가 서사연극론에서 주장한 것처럼 관객의 영화 수용은 영화에 몰입되어 영화 생산자(작가, 감독)의 의도대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두기를 통해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고 이상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우리사회가 아직도 현대사에 대해 합의된 기억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념문제 논란에 휩싸이는 현상을 낳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양 세력 간에 서로의 공과를 인정치 않으려는데 있어 보인다. 산업화 세력은 민주화 세력의 인권과 민주신장 성과를, 민주화 세력은 산업화 세력의 경제적 성과조차 인정하지 않고 의미축소를 하려는 것이다. 또는 자기가 속한 세력의 공이 조금이라도 폄하되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 때문인 것 같다. 서로의 공과 의미를 인정치 않고 자기진영의 의미와 가치만을 외치는 이기성에서 갈등이 증폭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현재의 시점에서 결과를 중심으로 과거결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생기는 편향은 아닐까. 결과가 좋았으니 과정이야 어쨌든 괜찮다고 보는 결과편향은 아닌가. 아니면 자신이 알고 있거나 제시된 일부 정보, 혹은 하나의 신화화된 특징을 중심으로 판단해버리는 이른바 기준점 설정 휴리스틱⁸⁾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양 팬덤 세력 간에는 자신들이 체득하고 획득한 가치범위 염려에 합리화하는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⁹⁾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영화를 수용하는데 있어서는 감독들의 바람처럼 <국제시장>은 소통과 조화로, <변호인>은 이해와 성찰로 받아들이는 게 어찌면 보다 건강한 미래 지향적 태도일 것이다. 영화를 평하는 사람들조차 자신이 편향에 빠져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메타편향(meta bias)이라는 편향맹점(bias blind spot)¹⁰⁾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가치에 맞추거나, 다른 사람들이 호감을 느낄 만한 방향으로 영화를 평가하는 않았는지 자기점검을 해야 한다. 다양성은 예술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한 사회의 버팀목이다. '나와 다르면 틀리다'는 편향성, 팬덤이 배태하는 반론 무시와 이견 차단은 우리사회 건강성만을 해칠 뿐이다.

우리는 두 영화를 '기념화'와 '애도'로 윤색된 상업

영화의 하나로 보면 된다. 영화를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 오용과 혐오를 확대 재생산해내는 도구로 볼 필요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아울러 근현대 역사, 산업화와 민주화 신화에 대해 정신적, 문화적으로 해체하고 우리의 기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는 좌, 우를 기준으로 한 명확한 정치적 구분보다는 '상식'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더욱 호소력 있게 다가오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념의 문제가 힘을 잃은 시대에는 옳고 그름에 관한 각자의 상식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영화의 의미 생산은 관객의 몫이다. 과거의 사회적 기억을 관객 개인들이 현재의 현실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상을 이성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로 삼는 하는 것이 영화를 수용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참고 문헌

- [1] 이석남, *인지편향 사전*, 도서출판 옥당; 서울, pp.5-13, 2016.
- [2]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2009.
- [3] 현성용, 김미리혜, 김아영, 김현택, *현대 심리학 입문*, 학지사, 2010.
- [4]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14.
- [5] 정병기, "생략된 세대의 정체성과 가부장주의 및 국가의 의미 - 영화 <국제시장>의 재현과 표현 -," 동향과 전망, 제95호, 2015.
- [6] 정병기, "생략된 세대의 정체성과 가부장주의 및 국가의 의미 - 영화 <국제시장>의 재현과 표현 -," 동향과 전망, 제95호, pp.149-150, 2015.
- [7] 강정석, "<명량>에서 <국제시장>까지: 천만 관객 영화의 감정 구조," 문화과학, No.81, pp.328-329, 2015.
- [8] 박은하, "국가라는 아버지를 가져보지 못한 세대: [국제시장] 리뷰," 2015.01.06. <http://http://slownews.kr /35851>
- [9] 좌세준, "<국제시장>, 누구의 편이냐고 묻지 말라: 영화 <국제시장> 논란에 부처," 프레시안, 2015.1.7.

8) 기준점 설정 휴리스틱(anchoring heuristic)은 결과치나 이미지를 떠올릴 때 모종의 기준점에 영향을 받아 왜곡된 편향을 일으키는 휴리스틱이다.

9) 인지 부조화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한 후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자기 합리화를 위한 핑계거리를 찾아 마음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현상.

10) 자신이 편향을 범하고 있는지 본인은 잘 알지 못하는 현상. 즉 '인지 편향에 대한 인지편향'이다.

- [10] 정병기, “생략된 세대의 정체성과 가부장주의 및 국가의 의미 - 영화 <국제시장>의 재현과 표현 -,” *동향과 전망*, 제95호, p.149, 2015.
- [11] 김지미, “1980년대를 ‘기억’하는 스토리텔링의 전략 -〈씨니>와 <변호인>을 중심으로,” *대중서사 연구*, Vol.20, No.3, p.36, 2014.
- [12] 이광일, “자유주의 정치 기획의 반복, ‘정치 빈곤’의 자화상 -영화 <변호인>을 중심으로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26호, p.247, 2014.
- [13] 박정원, “칠레의 <NO>와 한국의 <변호인>, 영화와 포스트메모리의 정치,” *비교문화연구*, 제44집, pp.52-54, 2016.
- [14] R. S. Nickerson, “Confirmation Bias: A ubiquitous phenomenon in many guis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2, No.2, p.175, 1998.
- [15] D. O. Sears and J. L. Freedman, “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 A critical review,” *Public Opinion Quarterly*, Vol.31, No.2, pp.194-213, 1967.
- [16] T. S. Wallsten and C. Gonzalez Vallejo, “Statement verification: A stochastic model of judgment and response,” *Psychological Review*, Vol.101, pp.490-504, 1994.
- [17] J. D. Campbell and P. J. Fairey, “Effects of self esteem, hypothetical explanations, and verbalization of expectancies on future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8, No.5, pp.1097-1111, 1985.
- [18] D. J. Koehler, “Explanation, imagination, and confidence in judgment,” *Psychological Bulletin*, Vol.110, No.3, pp.470-485, 1991.
- [19] R. S. Nickerson, “Confirmation bias: A ubiquitous phenomenon in many guis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2, No.2, pp.175-220, 1998.
- [20] 이예경, “확증편향 극복을 위한 비판적 사고 중심 교육의 원리 탐구,” *교육과학연구*, 제43권, 제4호, pp.6-7, 2012.
- [21] J. St. Evans, “Dual processing accounts of reasoning, judgment, and social cogni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59, pp.255-278, 2008.
- [22] M. Halbwachs, *On Collective Memo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 [23] P. Connerton, *How Societies Rememb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24] A. Assmann, *Erinnerungsraume*, 변학수 외 역, *기억의 공간*,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9.
- [25] P. Nora, *Les Lieux de memoir: Goldhammer, A. Realms of mem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 [26] M. Foucault, “Film and Popular Memory,” *Radical Philosophy*, Vol.5. No.11, pp.24-29, 1975.
- [27] 태지호, *기억문화연구*, 서울, 커뮤니케이션스, p.23, 2014.
- [28] J. St. BT. Evans, “Dual processing accounts of reasoning, judgement, and social cogni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59, pp.255-278, 2009.
- [29] Halbwachs, *La topographie legendaire des evangiles en terre sainte: Etude de memoire collective; Les cadres soiaux de la memoire*, L. A. Coser(Trans.), *On Collective Memo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38, 1992.(Original work published 1941, 1952).
- [30] K. Olick, *The Politics of Regret*, 강경이 역, *기억의 지도*, 서울: 옥당, pp.43-44, 2011.
- [31] James V. Young, *At Memory's Edge*, Yale University, 2002.
- [32] E. H. Carr, *What is History?*, 권오역 역,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흥신문화사, 2006.
- [33] 문재철, *영화적 기억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 2002.
- [34]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 [35] 백옥인, “SNS와 ‘파잉 정치’의 딜레마,” *시사IN*, 제224호, 2012.1.6.

- [36] 김기호, “[피플]김호기 교수가 쓰는 ‘시대정신과 지식인,’” 마지막회, 2012. <http://shindonga.donga.com/Series?c=990631>
- [37] 정병기, “생략된 세대의 정체성과 가부장주의 및 국가의 의미 - 영화 <국제시장>의 재현과 표현-,” 동향과 전망, 제95호, pp.127-156, 2015.
- [38] 조흠, “국제시장과 사회적 기억장치,” 대한토목학회지, 제63권, 제6호, pp.88-91, 2015.
- [39] 이남석, *인지편향 사전*, 서울: 도서출판 옥당, p.5, 2016.
- [40] 이남석, *인지편향 사전*, 서울: 도서출판 옥당, p.7, 2016.
- [41] 이남석, *인지편향 사전*, 서울: 도서출판 옥당, pp.5-13, 2016.
- [42] A. Tversky and D. Kahneman, “Availability: A heuristic for judging frequency and probability,” *Cognitive Psychology*, Vol.5, No.2, pp.207-232, 1973.
- [43] D. Redlawsk, “Hot cognition or cool consideration? testing the effects of motivated reasoning on political decision making,” *Journal of Politics*, Vol.64, No.4, pp.1021-1044, 2002.
- [44] 이택광, “휴머니즘으로 포장된 비정치의 정치, '관용의 세계', 다른 시선으로 '같은 세계'를 본 '국제시장'과 '변호인',” 2014.12.29.09:12. <http://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01>
- [45] 권유리아, “명령하는 아버지 응답하는 아들: 유아적 노년의 로컬 부산 - 영화 <국제시장>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45집, p.94, 2015.
- [46] 구가인, 임희윤, “[영화 ‘국제시장’ 신드롬]“아버지, 저 정치논란에 힘들었어예”, 2015.1.5. <http://news.donga.com/3/all/20150105/68906644/1#csidx772fcd1a5f04c59aeb082652c0db7b9>
- [47] 이경진, “엘리스씨를 위한 동정론,” 문학동네, 제78호, p.259, 2014.
- [48] 천정환, “1980년대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세대 기억의 정치,’” *대중서사연구*, 제20권, 제3호, p.200, 2015.

저 자 소 개

최 배 석(Bae Suk Choi)

정회원



- 1984년 2월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학사)
- 1994년 2월 : 뉴욕시립대학교 TV/ Radio 학과(석사)
- 2012년 8월 : 성균관대학 교 신 문방송학과(박사)

- 1998년 3월 ~ 2004년 2월 : 단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조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문화예술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영화, 문화예술콘텐츠, 소통심리학